

세월호 1주기 광주·전남 추모 열기 고조

시민단체 분향소 설치·선체인양 촉구...종교계 미사·천도제

수완중 학생 추모 국악 공연...시교육청, 4월 추념기간 지정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추모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추모 주간에 선포하고 추모 분향소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세월호 선체인양을 촉구하는 등 곳곳에서 참사 1주기 추모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참사 1주기 하루 전날인 15일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단체로 진도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팽목항과 맹골수로는 또 다시 무거운 슬픔이 감길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는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1주기 추모 기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민우회 등 광주지역 21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 뒤 인근 광주 YMCA에 마련한 추모 분향소에서 합동 분향을 했다. 광주대책위는 오는 17일까지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광주YMCA 무진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분향소를 운영한다.

세월호 참사 광주대책위는 주말인 11일 시민들과 함께 진도에 내려가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실종자 수습과 선체 인양을 촉구하기로 했다.

같은 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원회 위원들도 진도에 내려가 팽목항 임시 분향소를 참배하고 사고 해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참사 1주기 하루 전날인 15일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500여명이 팽목항을 찾는다. 희생자 가족들은 이날 오후 2시께 팽목항을 방문,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참사의 현장을 맹골수로도 찾는다.

참사 1주기인 16일에는 광주·전남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린다.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추모식이 열린다.

추모식에는 이날엔 전남도지사과 이동진 진도군수 등이 참석하며 진도 범군민대책위원회의 세월호 인양촉구 결의문 낭독, 진도 학생이 직접 쓴 추모 편지 낭독, 추모 풍선 날리기 등이 이어진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주관하는 1주기 추모 미사, 불교계가 주관하는 추모 법회와 풍등 날리기 행사도 예정돼 있다.

광주 금남로에서도 참사 1주기 당일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시민대회가 열린다.

광주지역 각급 학교에서도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참사 1주기 당일엔 학교별로 아침 조회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활용해 추념식을 진행하며, 4월 한 달을 추념 기간으로 정한 광주시교육청은 안전교육과 추모행사를 독려하고 있다.

광주지역 학생들이 준비한 추모 공연도 펼쳐진다. 참사 1주기 당일 수완 호수공원에서는 수완중학교 국악관현악단 학생 30여명이 준비한 세월호 추모 창작곡 '소소(滄滄)'가 울려 퍼진다.

추모곡 '소소'는 수완중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김상우씨의 곡으로, 사라진다는 뜻의 한자(소·消)를 써서 29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어린이집 화재 대피훈련 세월호 참사 1주년(16일)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 북구 재난안전교실이 8일 중흥어린이집에서 열린 가운데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원생들과 함께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역 울들어 첫 일본 뇌염 모기 발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를 확인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일본 뇌염 주의보는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초로 발견될 때 발령된다.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하거나 매개 모기 밀도가 높아지면 경보가 발령된다.

지난해 일본 뇌염 주의보는 2014년 4월 21일 내려졌다. 올해 일본 뇌염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약 2주 정도 이르다.

질병관리본부는 "광주 이외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30개 조사 지역에서 공동으로 일본 뇌염 유행 예측 사업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된 광주광역시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물웅덩이를 없애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

시화방조제 토막 살인 피의자 긴급 체포

경기 시흥 시화방조제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의 살인 피의자가 시신 일부를 추가로 유기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오전 10시 35분 시흥시 정왕동 A 공장 인근 길가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하일(47·중국 국적)을 긴급체포했다.

김은 살해된 한모(42·여)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은 한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피해여성 신원 확인 후 김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미행하던 중 이날 오전 출근길에 자신의 조카가 사는 건물 옥상에 사체 일부가 든 가방을 유기하는 것을 목격, 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흉악범죄 피의자인 김의 실명을 공개했다. 김의 얼굴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9 | 해질 19:00 | 달뜨기 23:25 | 달지기 09:10

따스한 봄날은 아직...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만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6/18	보성	구름많음	4/15
목포	구름많음	4/14	순천	구름많음	6/15
여수	구름많음	7/13	영광	구름많음	4/14
나주	구름많음	4/17	진도	구름많음	4/15
완도	구름많음	5/15	전주	맑음	6/17
구례	구름많음	5/17	군산	맑음	5/14
강진	구름많음	3/15	남원	맑음	5/16
해남	구름많음	2/16	홍산도	구름많음	5/11
장성	구름많음	4/16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남해	북동~동	0.5~1.0	동~남동	0.5
	남부	북동~동	0.5~1.5	동~남동	0.5~1.0
남해	남해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서부	북동~동	1.0~2.5	북동~동	1.5~2.5
동해	남해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서부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생활지수

수면	80
운동	70
빨래	60

혈세 17억 날린 광주도시공사

혁신도시 대출금 이자를 '재고 자산'으로 잘못 신고 시효 지나 법인세 환급 못받고 반환 소송서도 패소

광주시도시공사가 나주 빗가람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미숙한 회계처리로 1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17억6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것이다.

도시공사가 손실금으로 신고해야 할 대출 이자를 잘못 신고해 세금 17억6500만원을 더 냈지만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3년)가 지나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정웅) 판단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 11월 광주 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70억6300만원의 법인세를 더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시공사는 2007년 6월부터 빗가람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2489억원의 이자 571억원에 대한 70억 규모의 법

인세를 작으로 납부했던 것이다.

도시공사는 4년 7개월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고 초과 납부한 5년치 법인세 환급 신청에 나서 4년치에 대해서는 돌려받았지만 3년이 지난 법인세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입장을 전달받았다.

도시공사는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되돌려받는 데 실패했다. 결국,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실수로 법인세 17억6500만원을 더 납부하는 '선량한(?)' 납세자가 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이 직권으로 과세액을 변경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국세청에 과세액을 바로 잡을 의무가 있다면 납세 의무자에게 이의 신청기한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월 28일 조세심판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1심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사람중심·생명존중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